

육류중 유해물질 검사 강화

- 7월 1일부터, 닭고기 · 쇠고기 잔류물질 검사 실시 -

국내산 육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7월 1일부터 육류중 유해성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WTO의 출범으로 국내 및 수입축산물 위생검사를 무차별적으로 실시키로 되어 있는데다 국내 소비자단체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농림수산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닭고기와 쇠고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돼지고기는 97년 1월 부터 육류중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것이다.

닭고기에 대해서 정부는 본회와 협조해 지난 5월에 전국적인 교육실시와 농가 홍보를 통해 유해성 잔류물질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7월부터는 도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간이 정성 검사를 실시, 유해성물질의 잔류(양성) 판정이 되는 경우 1차로 농장에 대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때까지 출하를 금지하고 별도관리하게 된다.

농장, 소재지, 축주 등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2차 실시에서도 계속 검출되어 양성 판정이 되면 그 농장의 생산 가축은 식용불가 처분돼 동물사료 또는 육골분 사료화 하여야한다. 정부는 지난 6월말 각 도 및 생산자 단체에 동물원 및 육골분 사료공장 명단을 통보해 자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도하고 있다.

각 농장에서는 적절한 사료의 공급, 동물약품 사용, 양계장 위생관리제고로 피해보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고, 소비자에게 안전성있는 닭고기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육계 초기 사료제한 연구

5일령 부터 일주일간 사료제한이 보상성장으로 생산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호주 La Trobe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육계의 5~11령 기간 중 충분한 사료섭취량의 50%, 75%를 각각 급여한 실험구에서 사료제한 이후의 보상성장으로 39일령 이후 체중이 사료요구율, 도체지방, 도체율에서 대조구와 유의차가 없었다. 이는 12일령시 50% 제한구의 소화기관 무게가 타 시험구보다 무거웠으며 보상성장율은 50% 제한구가 75% 제한구보다 우수했다(wp).

잔류 항생제 정성검사 키트 개발

금년 7월 1일부터 국내산 가금육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농장 또는 도계장에서 간이 정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간이 검사용 키트가(Clean Kit) 개발되었다. 수의 과학연구소가 개발해 두산종합식품에서 생산하고 있는 간이 검사 키트는 닭고기의 잔류설파제 및 항생제 30여종 시험균의 발육여부를 단시간에 검출할 수 있다.

검사에는 별도의 냉장고, 인큐베이터(45℃), 시료채취 용기 등이 필요하며 4시간 정도면 설파제 및 항생제 잔류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판정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기관에서 간이 정성검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수당(한 샘플당) 약 2천원 정도가 소요된다.

닭 사육농장, 도계장, 유통과정에서 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잔류항생제 간이 검사용 키트 구입은 명선해양산업(☎ 774-7741)으로 연락하면된다.

일본인 육류섭취량 증가추세

일본인들의 에너지와 탄수화물 섭취량은 감소한 반면 육류 섭취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후생성이 지난해 11월 중 전국 3백개 지역의 5천가구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4년도 국민영양조사' 결과가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은 식물성의 경우 전년보다 0.2%가 감소한 반면 동물성의 경우는 전년보다 오히려 0.7%가 증가했다.

단백질의 경우도 79.7그램으로 전년보다 0.3%가 늘어났으며 동물성단백질은 0.7%가 증가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에너지섭취량은 전년보다 0.5% 감소했으며, 탄수화물도 전년보다 1.1%가 감소했다.

축산폐수 단속기준 강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르면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신고대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유물질에 대한 기준이 새로 도입되는 등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화조를 이용, 축사에서 나온 폐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철저한 정화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설개보수가 미흡한 농가의 경우 공사를 서둘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는 운동장에서 축산폐수가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부유물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돼 일반지역 500mg이하, 상수원 보호구역등 특정지역에서는 350mg이하로 낮춰 방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사면적 법적규제 규모도 대폭 강화돼 허가대상 기준의 경우 닭은 일반지역, 특수지역 모두 500㎡이상이고 돼지는 일반지역 1,000㎡이상, 특정지역 500㎡이상, 소·말은 일반지역 900㎡이상, 특정지역 450㎡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이같은 법적규제 규모의 강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6월말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해야만이 단속을 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으며 정화조시설 완비와 철저한 관리만이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관계법 시

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축산폐수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어 오·폐수의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가축분뇨의 경우 이용관리만 잘하면 생산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환경을 가꾸는 중요한 기능도 갖고 있다는 점을 중시, 올해 안으로 관련법 제정에 필요한 작업을 펴나가고 있다.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대책 필요

-국산 축산물 홍보대책 세워야-

값싼 외국의 축산물이 물밀듯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국내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축산업계에서 높게 일고 있다.

축산물의 소비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펼쳐는 단발적인 홍보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전담기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축산물의 소비홍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보전담기구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하여야만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사료용 부원료 할당관세 2.5% 적용

농림수산부는 최근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인한 국내사료업체와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 호밀, 옥수수, 수수 등 4개 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 외에 사료용 부원료인 매니옥, 밀기울, 근채류, 채종박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시켜 줄것을 재경원에 요청했다.

이에 재경원은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등 4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분야의 다른 품목을 신규로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시킨다는 것은 타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고 근채류와 밀기울에 대해서만 각각 2.5%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김홍국 회장 대학 발전기금 10억 기탁

김홍국 본회 회장(하림 대표)이 익산시 소재 원광대에 대학 발전기금 10억원을 기탁한다.

지난해 김회장과 송천은 원광대 총장이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6월 26일 오전 원광대 승산기념관에서 1차로 3억원의 전달식을 갖고 98년까지 연차적으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광대는 이 기금을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술연구비 등 대학발전 육성기금으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가금티푸스 예방약 개발

-한국미생물연구소, 가금티푸스 사독오일백신 시판-

가금티푸스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사독오일백신이 상품화되어 그동안 효과적인 백신개발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가금티푸스 방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경기, 충남지역은 물론 경북지역에까지 가금티푸스가 발생, 전국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 양용진)가 지난해 사독 겔백신에 이어 이번에 상품화에 성공한 사독오일백신은 접종효과가 확실하며 역가지속기간이 길어 방

제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접종기간이 길어 산란율의 지속적인 유지가 용이하여 경제적인 이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사육중인 닭품종이 외국과 달리 유색계가 90% 이상을 차지하여 가금티푸스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이 높아 피해가 심각하며 이번에 사독오일백신이 상품화되어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기대했다.

후군 및 계두 등에 백신을 접종하고 항생제는 일체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종계를 대상으로 미국 하바드 농장에서 구입한 백신으로 시험한 결과 확인됐다.

김교수는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14일령에서 30일령 사이에 적어도 2회는 접종돼야 발생지역에서 뉴캐슬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입종란 외래질병 매개 가능성

지난 6월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가금학회 세미나에서 남덕 세니테크 오경록 사장은 '가금질병과 방역개선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병아리 가격안정 차원으로 수입되고 있는 육용실용계용 수입 종란이 국내 양계농가에 외래성질병 전파 등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란수입이 육계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면에 치중,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가격안정 기여도보다는 방역업무 차원에서 종란수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란수입을 식란수입과 혼동하는 당국의 처사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란수입은 수입시 검역의 한계로 적절한 검사방법을 취할 수 없는데다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난계대 질병전파 등에 의한 다양한 변이형들이 종란으로부터 쉽게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전염성 기관지염(IB), 앵무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시급

경기도 화성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전국적인 혈청검사를 통한 항체조사가 필요시되고 있다.

이 질병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는데다 아직은 2개 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돼 전국적인 항체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박멸할 경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전문가들은 일단 발생보고후 달려가 이동제한과 역학조사 등의 미온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며 전국적인 항체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항체조사를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과 조직,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당초 경기 일원으로 발병

이 한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금인플루엔자가 어떻게 전북 지역까지 퍼졌는지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양계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종계 ND 발생지역 백신 프로그램

육용종계의 뉴캐슬 발생지역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4일령에서 30일령 사이에 적어도 2회 정도는 백신접종을 해야한다는 것이 제시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국대 수의과대학 김순재 교수가 종계의 뉴캐슬병을 막기위해 항생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고 감보로 바이러스성 관절염, 전염성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산란저하증

안전축산물 생산운동연합회 발족

안전축산물 생산운동연합회는 지난 6월 3일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발기인 총회개회를 위한 준비위원 모임을 갖고 준비위원장에 이길재 의원(대한수의사회장)을 추대했다.

이길재 준비위원장은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위험요소 중점 관리제도(HACCP)의 도입은 시대적 명제이며 축산업이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생산관리와 안전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안전축산물 생산운동연합회의 사업은 무엇보다 HACCP의 도입과 실천에 초점을 맞출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축산생산현장은 물론 유

통단계별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준비위원회에서는 본회 김홍국 회장을 비롯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수의과학연구소장, 국립동물검역소장, 대한양계협회장, 낙농육우협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신광순 서울대 교수 등 2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동회는 7월 3일 국회의 원회관에서 안전축산물 생산운동연합회 창립총회를 갖고 정관을 채택한 후 회장에 이길재 의원, 본부장에 이재진 소장을, 감사에 박근식, 김옥경씨를 각각 선임했다.

중국, 닭고기 산업 잠재력 무한

중국은 닭고기, 돼지고기 수출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쌀과 다른 축산물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많은 감소량을 보이고 있어 97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중국산이 상당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산 닭고기와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요

구되고 있다.

중국의 95년도 농축산물 수출 실적에 따르면 닭고기는 24만8천573톤을 수출해 90년보다 무려 5백57%나 증가해 앞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인 반면 쌀은 5만2천여톤이 수출돼 92년대비 94.6% 줄어들었고 쇠고기는 지난해 1만6천톤을 수출, 91년보다 87.7

% 감소했다.

특히 살아있는 가금류 수출도 85년이후 꾸준히 증가해 5천2백76만 마리를 기록하는 등 닭고기 산업이 중국의 농축산물 가운데 가장 수출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장기적으로 중국산 쌀, 쇠고기의 국내 시장 잠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중국산 닭고기는 국내시장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삼계탕 수출 급속 성장중

삼계탕의 국내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F사의 경우 92년 11월 일본에 처녀수출을 시작한 이래 9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두 배 이상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삼계탕이 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고있다.

이와 발맞추어 농림수산부에서도 싱가포르에 삼계탕 수출을 추진중에 있다. 농림수산부는 삼계탕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의 가축위생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공과 OIE(국제수역사무국)총회에 배상호 가축위생과장 참석 시에도 싱가포르 관계자와 접촉,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국내 도계기기업계 최초!!!

● 정부 품질인증(EM마크)획득!

● 국산 신기술(KT마크)획득!

— 태진기계는 정부에서도 품질을 보증합니다. —

- ▲ 자동도체 이양기
- ▲ 자동도체 개봉기
- ▲ 자동도체 가슴절개기
- ▲ 자동도체 기도 및 소낭제거기

- ▲ 자동도체 항문절단기
- ▲ 자동도체 내장적출기
- ▲ 자동도체 최종검사기
- ▲ 자동도체 중량선별기

- ✦ 하자보증기간 : 3년
- ✦ 즉각적 부품조달 및 A/S
- ✦ 국산기계구입자금대출 대상품목(3년거치 5년분할상환)



주식회사 태진기계

본사, 공장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832
TEL : (0351)871-9001~4, FAX : (0351)871-9005

소비자 단체 임원 닭 생산현장 방문

-국산 닭고기 위생처리 수준에 감동-

소비자단체의 닭고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위생닭고기 생산현장에서의 시각적인 교육을 위해 본회에서는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초빙해 닭 생산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지난 6월 28일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회장 장임순)임원 46명은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찰에 참가해 소비자들의 위생닭고기 생산에 대한 열기를 반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전광역시 5개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전북 익산의 (주)하림을 방문, 종계의 사육과정, 부화, 계열농장 CC사육 현장 등을 시청각 교재를 통해 본 후 도계작업 현장과 가공처리장 출고 과정을 직접 현장 견학하며 위생닭고기 생산과정에 대하여 직접 만져보면서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국내 위생닭고기 생산에 대한 깊은 신뢰로 국내 닭고기의 우수성에 감탄하며 수입 냉동닭고기와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닭에 대한 분별요령과 닭고기 우수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수입개방과 열악한 축산여건속에 세계적인 닭고기 생산수준을 갖추고 있는 국내 닭고기 업계에 찬사를 보내며 백색육 닭고기의 우수성에 동의하여 참가자들은 국산닭고기 소비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번 소비자 단체 닭 생산현장 방문 견학은 본회가 금년도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사업중 소비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각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인접한 회원사를 방문토록 주선해 국내 위생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데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관계자들이 본회 김흥국 회장의 안내로 (주)하림을 방문해 위생닭고기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유통과정의 근대화(Cold Chain화), 비위생적인 좌판 판매근절, 냉동-냉장육의 구분, 브랜드 닭고기의 구매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하림에서 차량 및 식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산란노계 처리 계속 어려워

최근 칠면조를 비롯한 가금육 또는 육류조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가공품의 원료로 쓰이던 산란노계의 판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칠면조 고기는 지난해 50톤이 수입돼 94년대비 1백16% 늘어난데다가 금류 고기는 4백30톤이 들어와 94년 대비 3백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타 육류조제품은 1천1백84톤이 수입돼 전년보다 무려 6백67%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95년도에는 한국이 미국 칠면조고기 최대수입국으로 밝혀졌다.

현재 많은 육가공업체들이 노계육을 소시지, 햄 등 육가공품

원료로 쓰지 않고 수입 칠면조고기 등을 많이 쓰고 있어 산란노계를 판매할 길이 없는 실정으로 새로운 노계육 이용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산란계 노계가격이 거의 형성되지 않으며 오히려 운반, 처리비용을 채란업자가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육계수입 규제완화 재검토

인도는 닭, 계란의 생산고가 지난 10년간 급상승하여 인도 정부는 수급규모의 확대에 따라 수입규제 완화를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육계사육수는 1970년 300만수, 1980년에는 3,000만수로 10배, 현재는 3억수로 확대되었으나 자국내 소비는 줄어 1인당 0.5Kg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출액은 연간 300만\$이고 중등으로 절반을 수출하고 있다. 향후 인도 정부는 연간 가금 산업생산 신장을 육계 15%, 계란 10%로 예측하고 있다.

닭고기 우수성 라디오 광고

KBS -2R

오후의 대행진

15:00~15:35

축산기자재 구입 외화자금 사용가능

-계열화 자금보다 싼 7%정도-

7월부터 농축관련기자재 구입 시 외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25억달러 한도내에서 모든 외국환 은행을 통해 국산기계를 구입하는 업체에 외화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산기자재 구입시에도 혜택을 받게 된다.

외화대출금리는 런던은행간 금리에 1.0~1.5%를 덧붙인 7% 수준으로 계열화 자금보다 낮고 국내의 자금보다 4~5% 낮은 수준에서 자금이용이 가능해진다.

대출규모는 총 25억 달러로 약5천개 업체가 대출받을 전망이다. 단 국산기계의 제작자와 구매자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중소기업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또 구매자가 중소기업이면 전액, 대기업이면 70%내에서 최대 1천5백만달러를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대상은 국산화비율이 50%를 넘는 품목가운데 통산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와 조세감면규제법의 자본재산업에 속하는 기계류에 국한된다.

러시아, 수입쿼터제 부과

러시아는 올 7월 1일 부터 육류 및 유제품 수입에 대해 쿼터제를 부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쿼터제는 더욱 엄격한 검사조건을 명시화 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 수의검사 담당자는 육류 수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수입품에 대한 질적 규제를 강화시킬 의도라는 것이다.

쿼터제의 목적은 자국내 산업 보호를 하기 위함이며 러시아의 브로일러 산업이 1995년 미국으로부터 부분육 67만톤 이상의 수입으로 충격을 받고 있어 특히 브로일러 수입에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호주, 브로일러 산업 지속적 성장

호주의 가금육은 매년 총 4십9만3천톤이 생산되며, 3억3천3백만수의 브로일러와 9백만수의 가금이 사용되고 있다.

브로일러 생산중 70%는 920개 농장에서 이루어지며 부가가치세가 높은 제품은 아시아로 매년 7천톤이 수출되고 있다. 국민 1인당 가금육 소비는 95년도 27.6Kg으로 점차 증가하여 99년에는 29.4Kg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도계전 급이중단 실험

미국의 델라웨어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는 도계에 앞서 사료급이를 중단하고 도계후의 계육 품질을 연구하는 실험을 하였다.

도계전에 급이를 중단한다 해도 육색에는 영향이 없으며 근육내 산도도 도계후 24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도계전 6시간 이상 사료를 급이하지 않을 경

우 가슴살의 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료를 뺀 시간이 길수록 가슴살의 다습도는 감소하나 넓적다리의 다습도는 증가하며 전단력은 넓적다리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도계 4~6시간 전에 사료급이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MIWON

미원마니커주식회사

신선하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Chicken



(주) TS 해마로

TS HAIMARROW Co., Ltd.

배합사료업체 사료원료 선물구매 기피

-선물구매의 기술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시급-

대부분의 배합사료업체들은 지난 80년대 중반에 수입원료 가격상승으로 인해 선물구매를 시도한 결과 80년대 중반이후 곡물가 하락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던 경험과 수입국 편중에 따른 선물구매의 장점이 없다는 이유로 선물구매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파동이 지속되어 선물구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배합사료업체들이 원료 선물구매를 기피하고 있어 곡물가격 앙등에 따른 불이익이 예견된다.

축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국제 곡물의 수급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선물구매의 기술성을 확보해야 하며 현재 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원료수급 문제도 관련업체들의 공동적인 대응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선물구매도 다양한 수급과정을 개설해서 실시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한 인력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선물구매에 따른 위험부담이 업체

의 생존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수급탄력성이 없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사료사업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원 마니커 B.B.Q 100호점 개점

미원마니커 계열사인 치킨패밀리 레스토랑 B.B.Q가 지난6월28일 강동구 길동에 100호점을 개점했다.

미원마니커가 사내사업가 제도를 도입, 별도 법인으로 (주)제너시스(대표 윤홍근)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B.B.Q는 닭고기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 닭고기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주거단지내 외식문화 창조를 실현한다는 목적아래 시작되었다.

비위생적인 개념을 없애는 사업전략으로 닭고기 외식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있는 B.B.Q는 지난해 11월 16일 경기도 전곡에 1호점이 개점된 이래 이번에 100호 개점에 이르렀으며 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진전으로 닭고기 소비확대에 고무적

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사는 앞으로 연말까지 600호점 개점을 예상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임직원 단합대회

양계협회 가평육계분회 및 회장단의 후원으로 지난 6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가평군 설악면 청평가든에서 개최된 11회 임직원 수련 및 전국 양계인 단합대회에 양계인 및 내외귀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첫날 1부에서는 강광과 이사(소시모), 이병화 박사(국제농업개발원 원장)의 강의가 있었고 저녁 식사후 2부에서는 안덕수 축산국장의 강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양계산물가격의 폭락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방화 시대에 가장 경쟁력있는 축종이 양계산업이니 정부의 시책을 믿고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둘째날인 13일 오전에는 체육대회와 함께 청평댐 견학을 하고 1박 2일의 일정을 마쳤다.


협회 회원 가입현황

정회원 30명, 준회원 49명,
특별회원 13명(총 92명)

96.6.31. 현재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2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 계열주체 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주)중원농장

영업부 TEL (0417)567-7792, FAX(0417)564-0771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M & CO., LTD.